

# 조경기사 ‘조경사’ 과목이 조경역사학(造景歷史學) 분야의 진정성 확립에 미친 사회적 영향

이창훈\* · 신현실\*\* · 김규섭\*\*\* · 이원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출제실 차장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 The Social Influence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Engineer Examin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uthenticity in Landscaping History Department

Lee, Chang-Hun\* · Shin, Hyun-Sil\*\* · Kim, Kyu-Seob\*\*\* · Lee, Won-Ho\*\*\*\*

\*Research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of Hanyang University

\*\*\*Deputy General Manager, Technical Qualification Question-Making Bureau,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Research Official,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ABSTRACT

This study was centered on the protested data of the issue of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handwritten course of landscaping articles of National Qualifications T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soci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rrecting erroneous historical f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landscape and culture history that can assist in the verification of the historical facts of the landscape sciences examination question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landscape architects' subject matter, the establishment of concept of landscape style and form and the confirmation of historical facts were investigated as important types to be established for development of landscape landscape history department. It seems that the social consensus of the expert group is needed to supplement the lack of data to refer to landscape architectural theory.

Second, the analysis of the problematic narrative contents resulted in a total of five types of questionnaires. The appeared in the Undefined style and form(52.94%), Unproven historical facts(25.13%), Obscurity Era classification(11.77%), Lack of specificity(6.95%), Content scope of obscurity events(3.21%)

Third, it is not only the lack of information to learn the theor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s in the landscape architect 's question items, but also the difference of contents between books was analyzed as the main cause of the proble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examples of the issues raised in landscape architectural problems, it was related to the social phenomenon, and it was classified into cultural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Fourth, the resolution of problematic issues in landscape architects' landscaping articles, which ar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ests, shows positive results. The information determined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erceived content can be used directly in landscaping field, and it helps the accuracy of the verification process by identify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ssues.

*Key words: Factor Analysis, Landscape Culture History,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Proven Historical Fact*

† **Corresponding Author** : Lee, Won-Ho, Nation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aejeon 35204, South Korea, Tel.: +82-42-610-7628, E-mail: ds17290@hanmail.ne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인 조경기사 필기과목 중 “조경사”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된 자료를 중심으로, 출제문제에 대한 논점 유형과 경향, 요인 등을 분석하여 잘못된 학술적 내용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조경사 시험문제에서 출제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조경문화사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을 연구 목적에 두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가 제기된 조경사 과목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경 양식 및 형태의 개념 확립’과 ‘역사적 사실의 고증’이 조경역사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선 정립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경역사 이론을 참고할 만한 고증자료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 그룹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둘째, 문제가 제기된 서술내용의 분석결과 총 5가지의 논점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미확립된 양식 및 형태의 정의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2.94%), 검증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25.13%), 불확실한 시대구분(11.77%), 사용된 용어의 구체성 결여(6.95%), 사건의 내용적 범위가 모호함(3.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경사 출제문항에 제기된 진술내용에서 비교분석하여 이론을 학습할 만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참고서적간의 내용이 상이함이 문제제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경사 문제에 제기된 논점의 특징과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현상과 관련되었으며, 문화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검정인 조경기사의 조경사 종목에서 논점으로 인지된 내용의 해결과정에서 결정된 정보는 조경사 분야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고, 논점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검증과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결되고 있었다.

주제어: 국가기술자격, 역사적 사실 검증, 요인분석, 조경문화사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역사(歷史)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할 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분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 창출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미래의 흐름도 예측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역사문화 양식은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형성된 특성의 문화권 속에 내재된 질서의 흐름을 의미하며, 현재에 대한 근원이자 미래에 대한 추진력이 된다[1].

이러한 맥락에서 조경사(造景史)는 단순히 선대(先代) 조경 유적의 기록이 아닌 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드러난 조경양식이라는 독창적인 문화적 정체성의 가치 구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조경의 특성상 단순한 기능위주가 아닌, 설계라는 창조적 작업이 시공의 전제가 되는 환경조성 분야에 해당하므로 조경역사학(造景歷史學)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국과 시대의 양식을 통해 폭 넓은 통찰력을 갖춘 조경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초학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조경사는 동·서양과 고대·현대까지를 총망라하는 역사 내용을 포함하기에 그 범위가 여타 조경과목에 비해 방대하고, 국내 조경학의 태동에서부터 내재된 식물재료 위주의 학문적 편향성으로 인해 역사학 분야 연구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되

지 못한 가운데 정확한 조경역사 정보가 구축된 학술자료의 양 또한 적은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조경역사 분야를 주력하는 학회는 지난 40여 년 동안 (사)전통조경학회가 유일하다.

또한 단일 학문 분야의 특성상 고고학이나 건축학, 한문학 등 인접 분야에서 발굴되는 신 자료에 의해 부분적인 수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기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립 또한 어려운 상태이다.

이와 같이 학문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자 입장은 난해한 과목으로 인식하게 되고 정보 습득과정에서 맹목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사용되는 조경역사학 분야의 정보습득 경로는 1970~1990년대에 출판되었던 초판서적이나 수험생들의 자격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출판한 소수의 수험서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조경사 과목은 조경기사 자격시험의 6과목<sup>1)</sup> 중에서도 기초이론적 성향이 강한 학문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NCS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으로 명목상 직무능력과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조경사 과목은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후세대들에게 배움의 기회마저 사라지게 방치해 국적 없는 조경양식 만들어내는 미래를 안겨 줄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조경사 시험 존폐의 위기상황에서 해당학문 분야나 관련 학회의 어떠한 사회적 성찰이나 자구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으며 조경사의 학문적 흐름과 시대적 패러다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임에 틀림없다.

국가에서 주관되는 기술자격을 자격증 취득의 당락과 직결

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일반 역사적 내용의 경우 검증절차를 걸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훨씬 신속하고 명확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결정된 정보는 조경역사학 분야에 공신력을 지니게 된다.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 검증인 조경기사 종목의 필기과목 중 '조경사'의 출제 당시의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된 자료를 중심으로 출제문제에서 논점이 되는 유형과 요인 등을 분석하여 잘못된 조경역사의 사실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조경사 시험문제에서 출제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조경문화사 분야의 학문진작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2.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과 '조경사' 분야 동향

조경학의 성장은 기존 인접 학문 분야로부터 고유영역을 확보하며 분화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특히, '조경학'을 주제로 학과가 처음 개설된 1973년 당시에는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교 2곳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 64개 대학에 '조경'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1973년 정부는 기존의 각종 자격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술자격 중심의 국가자격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74년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조경기사 1급, 2급' 자격이 신설되어 조경학의 본격적인 성장의 도약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이후 1980년대를 지나며 조경학의 외연적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조경사 연구 또한 함께 발전하였다. 특히 조경사 관련 연구는 내용과 범위가 다변화되어 그 주제가 한국조경사를 위주로 진행되던 것에서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등으로 영역이 확산되었다<sup>1)</sup>.

조경학 출제 분야에서는 1980년대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1990년대 자격시험업무 처리절차 및 방법

간소화를 이루었으며, 2000년 이후로는 매년 녹색 분야 기술의 변화속도를 반영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조경기사의 경우 과목과 출제기준의 적합성을 5년 기준으로 일몰제(日沒制)<sup>3)</sup>를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적합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시대흐름에 발맞춘 기술변화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사' 과목은 그간 큰 변화 없이 초기의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건설 분야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조경업계 역시 불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취업난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인력들이 몰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경제상황과는 반대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조경분야의 조경기사는 국토개발 분야의 다른 인접 분야(건축, 토목, 산림 등) 자격과 비교할 때 합격률이 저조하며, 배출되는 인력 역시 소수로 산업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처해 있다.

더구나 자격취득의 장애요인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 1과목이 많은 시험 과목 수는 수험생의 학습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조경사가 주목받고 있어 일선 학교 교육에서 조경역사학(造景歷史學) 분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요구에 의해 조경학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타 분야와 관계 정립에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경사에 대한 연구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Pae(2003)는 과거 조경의 양식이나 정원 조성의 특징을 추적하는 양적 성과에 비해 문헌으로 남아 있는 사료가 적다는 이유를 한국조경사의 한계로 언급하였다<sup>2)</sup>. 같은 맥락으로 So and Lim(2015)은 한국조경사 기출문제의 경향을 파악하여 보편성이 결여되는 사항에 대해 점검의 필요성과 함께 객관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조경사 교재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sup>3)</sup>. 조경사의 중요성을 언급한 선행연구로 Byeon *et al.*(2015)은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조경사 과목이 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필요과목임을 강조하였다<sup>4)</sup>. 그러나 국가기술자격 개편작업의 기본 방향은 실무를 위한 능력 위주의 항목으로 결론지어졌다.

Table 1. The History of the Subjects of Landscape Architecture Engineer According to Social Changes

Year	Contents
1980's	Present Content that Matches the Industrial Sites Pre-Release of Practical Test Questions Computerized Item Pool
1990's	Provide Convenience of Examinee Simplify Procedures for Qualification Test Installation of Permanent Test Site Expansion of Examination Area
After 2000	Reflecting Green Technology New Maintenance by Applying Other Changes

## II. 연구방법

###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조경기사(조경기사1급)가 처음 실시된 1974년부터 2017년까지에서 제기된 조경사 문항의 이견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득이 분석 대상 중 2008년 이전에 제기된 내용은 자료화되어 있지 않아 출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자료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008년 이후부터는 문제제기 자료를 보관하는 정책이 추진된 것에 수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연구 재료로 활용이 가능한 2010년 1회차부터 2017년 4회차까지 총 24회차 조경사 시험에서 제기된 74문항(312건)의 이견 진술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협조를 얻어 개인정보 등 연구목적 이외의 자료열람 및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되었다.

## 2. 연구방법

조경사 출제문항에 대한 민원과 이견제기의 빈도를 조경사 분야의 관심지수로 가정하고, 제기된 문항에 대해 인지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개방형 설문을 응용하였다. 이견이 제기된 각 문항에 대한 진술기록을 “문항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개방형 질문을 설정하고, 각각의 진술기록을 대상으로 축어록(逐語錄)을 작성하여 텍스트화 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주제별로 개념을 분류하고 범주화를 위해 ‘유사성’과 ‘차이성’에 근거하여 구분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5]. 텍스트화된 자료에서 표상되는 특성을 적용하여 개념을 구분하게 되면 대등한 수준의 동위개념(同位概念, array of class)을 추출할 수 있다[6][7].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조경사에서 문제로 인지하는 논점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과 사례, 유형별 요인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경사 출제문항별 제기된 이견 빈도는 수험당사자의 자의적인 주장이 가미된 경우가 많아 문항 자체의 본질적인 시비(是非)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제기된 각각의 진술이 중복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지니므로 문항에서 나타나는 논점의 유형을 분류하여 일반화하는 과정 또한 어쩔 수 없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견이 제시된 문항들에서 출현하는 논점을 유형화하는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경사 문제에 제기된 논점 유형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출제되었던 조경사 문제 중에서 정답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었던 진술 내용을 대상으로 조경역사학 이론의 학술적 진정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유형을 대분류하였다(Table 2).

그 결과 출제문항에 대한 학술적 진정성이 문제시 되는 ‘근본적 논점(59.94%)’과 맞춤법 및 문법관련 실수, 수험자 개인 주장과 같은 ‘기술적 논점(40.06%)’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조경역사학 분야의 진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논점 유형을 제외하 나머지 진술 내용을 구체화하여 ① 미확립된 양식 및 형태의 정의, ② 미검증된 역사적 사실, ③ 불확실한 시대구분, ④ 사용된 용어의 구체성 결여, ⑤ 사건의 내용적 범위 모호 등 총 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했다.

앞서 분류한 문제제의제기 이유의 5가지 논점은 미확립된 양식 및 형태의 정의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2.94%), 미검증된 역사적 사실(25.13%), 불확실한 시대구분(11.77%), 사용된 용어의 구체성 결여(6.95%), 사건의 내용적 범위 모호

Table 2. Classification of Argument Raised

Landscape History Type of Argument	Proportion
Undefined Style and Form	52.94%
Unproven Historical Facts	25.13%
Obscurity Era Classification	11.77%
Lack of Specificity	6.95%
Content Scope of Obscurity Events	3.21%
Total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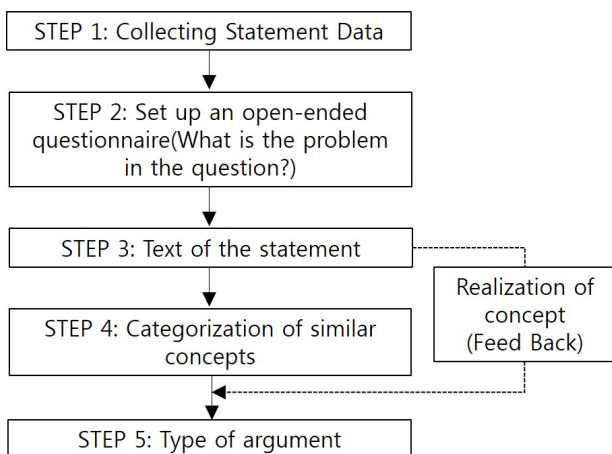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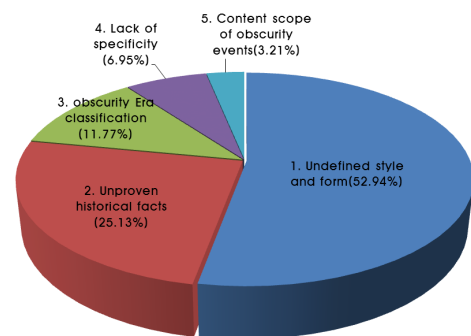


Figure 1. The Process of Typifying Argument Introduced in the Question

(3.21%)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조경사 문제에 제기된 논점의 특징 및 사례

### 1) 양식 및 형태 정의의 미확립

조경사 문제에서 대두된 문제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대표할만한 양식 및 형태의 기준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확립되지 않는 경우였다. 여기서 양식 및 형태 범위는 '지각의 속성'과 '사물의 속성'이 더해진 확장 개념 모두를 포함한다[8].

조경사에서는 정원 양식 및 형태의 특징을 정의하는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다루는 범주가 중복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조경공간형태나 조경요소의 설명 정립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일본조경사의 경우 현재 일본 내 조경양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었으며 용안사 석조방식에 대한 이의제기 사례를 통해서도 일본 서적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별도로 통일신라시대 동공과 월지의 연못형태가 일본 평성궁 동원의 연못조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일본에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우리 조경사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다.

다른 사례를 들자면 동양에서 유람관상(遊藍觀賞)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은 정(亭), 대(臺), 누(樓), 각(閣) 등이다. 정, 대, 누, 각은 평지, 산지, 수변 등 설치되는 장소가 다양하다.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 또한 막힌 구조와 열린 구조를 모두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뒤에 붙는 명칭만으로는 입지적 형태나 구조적 특징을 구분 짓기 모호한 대상 중에 하나이다. 이는 전통조경 및 고건축 등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협업을 중심으로 하여 기준 마련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또한 조선시대 고궁을 비롯한 사대부 주택 및 정원 공간의 특징을 설정하는데 보편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서로 구분한 내용과 상충되고 더구나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나타났다.

### 2) 검증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의 사용

조경사에 사용되던 역사적 내용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학설이나 고증에 의해 밝혀지기 전까지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예컨대 고려시대 조경사의 경우는 내용이 전해지는 사료가 부족하고 현지답사와 실측 등 방식으로 도출된 자료도 지극히 적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또한 고려의 주요 문화유적은 북한 개성 지역에 주로 남아있어 고려의 조경사적 실체를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다. 고려시대 궁원에 관한 내용은 문헌에 나타난 기록을 계속해서 재인용하면서 문장의 해석 범위가 확장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역사적 사실이 오인된 사례로 『화암수록(花庵隨錄)』의 저자에 대한 검증이 대표적이다. 2009년 이전까지 『화암수록』의 저자는 강희안(姜希顔, 1417~1464) 혹은 송타(宋塔, 1567~1597)로 알려져 왔으며, 시험출제에는 일반적으로 강희안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양대학교 한문학과 정민 교수에 의해 문헌고증과 기타 관련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화암수록』의 저자가 조선 후기 유박(柳璞, 1730~1787)으로 최초 확인되었으며, 현재 내용을 바로잡아 적용하고 있다. 과거 『화암수록』의 저자가 강희안으로 잘못 알려진 이유는 1973년에 『양화소록(養花小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화목의 등급을 자세히 소개한 『화암수록』의 내용을 부록에 수록하여 이 글도 강희안의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서 오용되었던 것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정민의 정황 설명에 따르면 당시 을유문화사에서 이병훈 선생에게 강희안의 양화소록과 화암수록이 함께 묶어진 것을 전달하게 되면서 이 두 권의 저서가 한권으로 오인된 것이라 한다.

원예학자들은 을유문고본의 부록만 믿고 『화암수록』을 조선 전기 강희안의 저술로 생각해왔고 시조 연구자들은 역대 시조 전서에 따라 이를 송타의 작품으로 믿어왔다[9].

유사한 사례로 조경 관련 인물의 이름이 잘못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출제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중국원림의 설계·조성에 관해 소개한 『원야(園冶)』의 저자인 명나라 시대의 계성(計成, 1582~?)과 관련한 사례이다. 일본인 학자 강대로(岡大路)가 1944년 집필한 『지나정원론(支那庭園論)』이 1987년 국내에 번역·소개되면서 계성의 성이 '계'씨에서 '이'씨로 잘못 표기된 것이다. 원작자 강대로는 일제강점기 때 남만주 공업전문학교의 교수를 역임했으며 1941년 퇴직하고 책의 발간당시에는 만주국(현 만주지역 일대) 건축국에 몸담고 있었다. 이 책의 내용은 만주건축잡지에 28회 동안 연재되었던 중국궁원원림사교를 합본한 것이다. 그는 책 서문에 중국궁원 원림관련 연구를 한지 10여 년이 되었으며 탁도영태랑군(澤島英太郎君)의 권유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나'는 당시 일본이 중국을 낮춰 부르는 말로 중국정원에 관한 개설서 형식을 띄고 있다.

우리나라에 1987년 중국출판사에서 출판되어 소개된 이 번역서[10]는 일본에 의해 연구된 내용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작자가 오역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故윤국병 교수의 조경사 재판본에서 제대로 고쳐진 바 있었으나 그 이후로도 두 가지 내용이 별 관심 없이 존속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계성의 원야에 대한 내용은 성균관대 한문학과 안대회 교수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원야』에 대한 원저자의 이름을 수정한 바 있다. 당시 조경사

의 자료갱신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 출제문항 관련자료의 신뢰도 문제에 대한 사례도 있다. 대백제 자료관에서는 "...석조(石槽) 2기는 원래 대통사지 강당지 전면 좌우에 대칭 배치되었던 것으로 반죽동 석조는 강당지 좌측에, 중동 석조는 우측에 있었던 것이다. 연꽃을 담아 장식하기 위한 수조였으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여기에 창포를 심었던 기록도 있다..."라는 대통사지 석연지와 관련한 백제정원 기록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문헌 검증 결과 『동국여지승람』을 포함한 다른 고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문헌기록에서 존재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반박 자료로 잘못된 사실임을 밝히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현재 충청남도역사연구원의 대백제자료관에서 언급하던 위의 내용에 관해서 관련 문헌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통해 보면 조경사 분야의 전문성은 주변 학문 분야의 결과들을 여과 없이 차용하는 방법을 사용한 역효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조경사분야의 학술적 자료의 미비에서 오는 타 학문 분야의 차용과 역사 분야의 넓은 범위에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3) 불확실한 시대 구분

학문 분야별 시대구분은 해당시기의 사건에 대한 관점과 인식에 따라 서로 다르게 도출되는 특징을 전제로 하며, 사회가 변화하면서 각 분야마다 다수의 시대구분에 대한 시각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학문 분야별로 시대구분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외국 사례의 경우는 새롭게 규명된 내용을 수용하지 못한 채 과거 오래된 것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었다. 물론 새로운 경향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정보력이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도 1970년대 발간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현대'의 기준만 보더라도 서양에서는 일반적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광복 이후를 현대라고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근대와 현대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통념으로서 1900년대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은 이미 근대화의 진행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한정부가 수립된 후에 현대라는 시대구분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 구분의 다양성에 대한 논점은 일본 정원양식을 기준으로 한 시대구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일본조경사의 시대구분 기준은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는 시대별 정원 양식의 내용과 상이하다.

또한 중국 정원양식에 대한 자료는 근대시기 일본에서 제작된 자료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 쓰인 중국원림에 대한 내용은 식민사관에 입각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실린 경우도 많았다.

### 4) 사용된 용어의 구체성 결여

외국 조경사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리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표현의 사용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본질이 전달되지 않거나 누락되어 의미전달 차원에서 모호한 표현이 다수 발견된다. 이는 뜻하고자 하는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전달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정보를 파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에 외국의 대상과 일치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외국번역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학계에서 용어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사용된 용어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논점이 된 사례를 살펴보면 '정원의 범위', '정원요소의 범위', '정원 관련 서적의 범위' 등과 같이 대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설정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삼국-고려-조선-근대'와 같이 시대순서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삼국-고려-조선'은 국가개념의 분류체계를 지니고 '근대'는 시대의 분류체계를 혼용한 경우가 구체성이 부족한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집트 주택조경에서 사용된 정자를 'Arbor'로 병기하는 과정에서 영단어가 중의적인 의미를 포함한 경우 등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용어의 사용에 있어 전달하고자 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표현을 구체적인 용어로 조정하는 역할은 전문가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5) 모호한 역사적 사건의 일반화

역사적 사실로부터 인과관계를 추론하여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내용적 범위의 설정이 어려운 모호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를 특징지어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 관계를 추론하는 데 사건과 인물 간의 잘못된 설정이 연관을 갖는 특징을 나타낸다.

도시미화운동에 관한 출제문제에서 도시미화운동을 다니엘 번함이 주도했고 그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실에서 확대 해석하여 그가 도시미화운동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한 것으로 사건과 인물의 업적이 잘못 표현된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다니엘 번함의 전기를 쓴 찰스 무어의 기록에 이것에 대해서 번함이 이론을 펼친 흔적은 눈에 띄지 않는다[11]는 내용을 통해 바로잡혔다.

## 3. 조경사 문제에 제기된 논점의 요인

조경사 출제 당시 이의 제기된 75문항에서 진술된 논점의 주요 원인은 과거 내용의 이해를 돕는 글, 그림, 사진 등의 정보량이 부족하거나(46.75%), 조경사 분야에서 지침이 되는 대표



서적 및 참고자료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30.06%), 부정확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한 경우(18.18%)로 파악되었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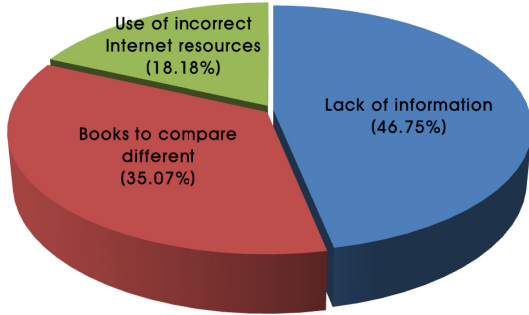


Figure 3. The Causes of the Argument in the Statement

앞서 도출된 5가지 논점유형의 특징과 사례에 천착하여 요인을 살펴본 결과 크게 문화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Table 3).

문화적 요인으로 광복 이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조경역사적인 이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결여되었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권의 조경사 분야를 이해할 만한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나라마다 생산되는 정보의 양은 무한대로 증가하고 그 나라의 자료를 직접 찾아가서 구하지 않아도 수집할 수 있는 편리성은 있으나, 질적인 수준은 이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절대지식'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의 부족 역시 조경역사학 정보를 습득하는데 잘못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조경사의 광범위한 내용에 비해 다양한 접근을 통한 비교할 만한 정보의 부족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자료나 국외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번역·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재생산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남북 분단이라는 정치적 요인으로 고구려·고려·발해 시대와 관련한 조경사 내용은 국가 이해관계 및 과거사 정리와

관련하여 역사학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으로 원문적 접근이 어려워 기초정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종합고찰

##### 1) 조경사 출제 분야의 문제점

조경사 분야 출제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에서 학문적 진정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찰한 결과, 조경역사학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는 사안은 '양식 및 형태의 개념 정립'과 '역사적 사실의 검증'으로 파악되었으며 조경사 정보습득에 있어 양식의 정의나, 형태적인 설명이 확립되지 않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다수의 의견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대상의 정의나 개념 등의 이론이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용어 사용의 구체적인 범위가 확실하지 않아 학습자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경사와 관련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한 이론 교재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서적간의 내용이 상이함이 조경사 분야의 공통적인 문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정보에서 전달하는 구체성이 결여될 경우 문제에서 요구하는 본질을 잘못 해석하여 오류로 이어졌으며, 용어 사용의 명확성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개선해야할 과제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이렇듯 조경사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이론에 의한 양식사적 접근과 함께 사회사적 접근 방식이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 2) 사회적 순기능과 대안

조경사 분야의 미확립된 양식 및 형태의 정의, 미검증된 역사적 사실, 구체성 결여 등과 관련한 학문적 진정성에 대한 논점은 그간 조경사 분야의 학문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쓰인 조경사 관련 문헌을 번역한 교과서가 현재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학계에서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이는 선학들의 선구자적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 1970년대 조경학이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면서 조경사가 바로 뒤를 이어 1980년대에 학문 활동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국가자격시험에서 조경사의 문제로 대두된 내용이 학문의 초창기 수준을 넘지 못한 것은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조경사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회적 순기능의 역할을 해온 사회적 장치는 조경기사 시험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되고 있고 이의 핵심은 국가 직무능력표준이라는 데 있다. 이는 쉽게 말해 실무능력에 적합한 내용들만을 교육하고 평가하자는데 있다. 그동안 우리는 역

Table 3. Factors of Argument on Features and Cases

Division	Contents
Cultural Factor	Lacks Verification in Accepting the Established Theory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fter Liberation Lack of Ability to Sorting Information from Leap into an Information Society
Political Factor	As the inter-state interest and past history clearance continue, the related theoretical concept has not been established and the existing information is used.

사교육의 일환으로 조경기사 시험에 조경양식 등의 습득이 조경설계나 한국조경의 정체성을 일깨우는데 중요하다는 설득만을 해왔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조경사 분야의 관련 학회에서 배출한 논문의 기여도는 사실상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조경기사 시험이 그동안 해온 순기능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조경역사학의 이론을 바로잡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동안 관련 학회의 기능은 미약했던 것으로 체념하고 이제 우리 앞에 닥쳐온 조경사 분야의 기사시험 퇴출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제는 조경기사 시험에서 담당해왔던 사회적 순기능을 조경사 관련 전문가들과 학회에서 담당해야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경 분야의 역사적 사실과 고증을 주제로 한 학제 간 정기세미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의 조경사 관련 서적에 대한 내용 검증 및 교정 작업과 같은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학회 홈페이지 등에 조경사 관련 신 사료 발굴 제보나 기존 오류신고 등의 창구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조경역사학의 특징상 기존의 조경사를 조경문화사 개념으로 확대하여 학제 간 연구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참고했던 예술사, 문화사, 건축학, 한문학 등의 학자들과 우리 관심사를 공유하여 언제든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견을 좁히며 최신경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화라는 틀을 통해서 융합하고 각자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조경역사학의 분야도 학문적으로 진전될 수 있으며 사회 제도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중요성도 부각될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조경기사 필기과목 중 '조경사' 기출문제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중심으로 출제문제에서 논점의 유형분류, 유형별 문제점과 요인,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경사 시험문제에서 출제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조경역사 분야의 순기능과 학문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을 연구 목적에 두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가 제기된 조경사 과목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경 양식 및 형태의 개념 확립과 역사적 사실의 고증이 조경역사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선 정립되어야 하는 중요한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경사 이론을 참고할 만한 자료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문제가 제기된 서술내용을 분석결과 총 5가지의 논점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미확립된 양식 및 형태의 정의

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2.94%), 미검증된 역사적 사실(25.13%), 불확실한 시대구분(11.77%), 구체성의 결여(6.95%), 사건의 내용적 범위 모호(3.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경사 출제문항에 제기된 내용에서 보면 이론을 학습하고 비교분석할만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적간의 해당 내용이 상이함이 문제제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논점의 특징과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였으며, 문화적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넷째, 조경사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회적 순기능의 역할을 해온 사회적 장치로 조경기사 시험이 일익을 담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제도적 절차에 의해 명확하게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과 관련된다.

이제는 조경사 분야의 사회적 순기능을 조경사 관련 전문가들과 학회에서 담당해야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본 연구는 분석 자료로 활용했던 조경사 기출자료에 한정하여 조경기사 종목 안에 포함된 조경사 문항만을 다루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조경기사 과목 시행에서 보이는 조경사 분야의 진정성 확립을 위한 사회적 순기능 등 일련의 과정을 다룬 기초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 사실을 통해 조경사의 이론정립과 발전은 융복합적이며 공간철학에 바탕에 둔 조경역사학 분야의 진정성 확립에 중요하며, 조경사를 배출하는 자질의 기본이 되는 덕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조경기사 시험에서 조경사 과목 폐지라는 작금의 상황을 살펴 볼 때, 그간 학문의 사회화에 미흡했던 학계의 과오만을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에서 담당했던 기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경사 관련 내용 검증 및 교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주 1) 조경기사의 과목은 Q-net 홈페이지 자료실에 제공하는 자격정보를 통해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시공학, 조경관리론, 조경식재, 조경사의 6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2) 1981년 12월에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기술자격 관련 소관 부처가 과학기술부에서 노동부로 바뀌었고, 1982년 설립된 공단이 자격시험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주 3)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로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뒤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고자 도입하였다.

#### REFERENCES

[1] Shin, S. S.(2003). Research Trends concerning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 Architecture, 31(5): 146-152.
- [2] Pae, J. H.(2003). Urban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Korean studies*, 29(3): 243-247.
- [3] So, H. S., and Lim, E. J.(2015). The Tendency of the written Test Questions for the History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in national Qualification Test of a Landscape Engineer.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3(2): 89-102.
- [4] Byeon, J. S., Ahn, S. R. and Shin, S. H.(2015). A Methodology to Develop a Curriculum based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3(1): 40-53.
- [5] Kwon, D. D.(1993). A study on the judgments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the categor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6] Pak, J. S.(1986). Une étude sur le concept d'isotopie et son application Le pont Mirabeau et De'jeuner du matin. Master's Thesis of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7] Chung, H. S.(2004). A Study on the Chronological Division in Classific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4): 469-489.
- [8] Han, S. G.(2013). A study on the aspects of contemporary architectural form with interrelation of twofold meaning. Doctoral dissertation of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9] Jung, M.(2007). Discovery of Intellectuals in the 18th Century Joseon. Seoul: Humanist.
- [10] Oka Oji and Kim, Y. B.(1987). *Chinese Landscape Architecture*. Daegu: Chinese Press.
- [11] Mikiko Ishikawa(2001). *TOSHI TO RYOKUCHI*. Tokyo: Iwanami Shoten, Publishers.

---

원 고 접 수 일: 2018년 9월 11일  
심 사 일: 2018년 9월 15일 (1차)  
게 재 확 정 일: 2018년 9월 15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